

냉전 문화 속 영자와 만나

<목차>

1. 들어가며
2. 영화 속 인물들, 관계의 중층성
3. <안나의 유서>, 동일시할 대상의 부재
4. 나가기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1975년에 개봉한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와 <안나의 유서>를 통하여 1970년대 냉전 문화 속에서 특정한 사회 현상과 함께 남성성이 구성되던 방식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여성이 기억되는 방식을 분석하려 한다. 전자는 전후 아버지를 잃은 채 동생들을 공부시키려는 어머니를 도우려 상경한 영자가 매춘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후자는 전쟁고아가 된 박명애가 ‘안나. 박’이라는 ‘양공주’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즉 전후 가난함 속에서 생존하려 애쓰지만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결국 사회적으로 가장 천시 받는 매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한 여성의 기구한 삶을 그린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전자는 여성 수난사의 대명사가 된 반면, 후자는 제목조차 기억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등장인물에 대한 관객의 ‘동일시’ 여부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사회적 위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닐까.¹⁾ <영자의 전성시대>는 당대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 등의 대중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던 흐름 안에서 조선작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다. 이들 ‘청년 영화’는 정부가 적극 장려하던 ‘순문학’의 영화화를 일컫던 당대 문예영화와 달리, 젊은 영화인과 관객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산되고 수용되었다. 또한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던 ‘문예 영화’가 보여주는 실험성보다는 관객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면서도 상업주의와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일정 정도 거리를 갖고 있었다.²⁾

최인호, 조선작, 조해일은 모두 1970년대 도시화, 산업화, 제도 교육의 확대로 인해 ‘대중문학’이 형성된 문화 지형 속에서 부각된 인기 작가들로서 이들 작품의 베스트셀러화는, 1980년대 문학의 이념성, 경직성이나 1990년대의 자본주의적 상품 논리와 구분되면서 작가와 독자라는 문학 내적 연관관계에 의해 지배되면서 대중적 기

1) 매매춘 산업 중에서도 가장 천시되어 맨 나중에 하게 되는 매춘이라는 의미에서 ‘막장 인생’으로 불렸던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내 매춘 여성들조차 우월감을 가질 정도였으며, 이들을 위한 여성 운동은 1986년 두레방 개원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여성의 전화 엮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아카데미, 1999, 350쪽 참조).

2) 백문임, <70년대 문화지형과 김승옥의 각색 작업>,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03, 62~63쪽 참조.

호, 취향, 이상향 등의 가치관, 감수성 등을 엿볼 수 있게 한 문화적 특색을 지녔다. 베스트셀러가 당대 대중의 욕망을 반영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와 영화로 각색된 <영자의 전성시대>의 차이를 통하여 어떤 연령과 계층의 어떤 욕구가 퇴색되고 어떤 욕구가 더 강조되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와 같은 해에 개봉되었지만, 대중의 외면을 받은 <안나의 유서>와 비교해봄으로써 같은 ‘여성 수난 서사’임에도 어떠한 점에서 대중의 관점을 끌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2. 영화 속 인물들, 관계의 중층성

영자와 안나는 경제 성장을 일궈내면서도 경제 성장의 이면에 존재해야 했던 슬픈 여성의 초상인 동시에, 영화 속 재현을 통해 대중적 인식에 내재한 서로 간 위계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영자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촌에서 상경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성매매를 하게 되며, 안나는 6.25로 인해 전쟁고아가 된 이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한다. 전자는 당시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였지만, ‘무작정 상경’한 여성으로 호명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군, 즉 농촌으로 돌려보내야 할 계도의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³⁾ 후자는 1970년대 들어서 한국 정부에 의해 외화를 벌어들이던 ‘애국자’로 호명되는 동시에 ‘양공주’로 불리는 등 이중적 인식과 대우를 받았다. 이 여성들은 가족주의, 내셔널리즘의 서사에 포섭되는 동시에 개인적 일탈로 배제될 수 있는 경계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후자는 국내 남성을 상대하는 영자와 같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낮은 위치에 처해있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또한 이 여성들의 고객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여부에 따라 집단 외부뿐 아니라, 이 여성들 집단 내부에서도 위계가 있었다.

김벌리 크렌쇼는 1976년 엠마 디그레핀리라는 흑인 여성이 제너럴 모터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⁴⁾ 엠마는 자신이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너럴 모터스 생산부에 취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회사가 1964년 이전에는 흑인 여성을 채용한 적이 없고 1970년 이후 채용된 흑인 여성은 모두 정리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백인 ‘여성’을 채용한 적이 있으며, ‘흑인’ 남성을 채용한 일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엠마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⁵⁾ 크렌쇼는 법원의 흑인 여성의 인종과 성이 결합된 차별을 겪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 및 인종차별 독트린의 경계가 각각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경험에 의해 규정됨을 지적하면서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자아의 공백을 설명하기 위해 교차성

3) 손영님, <1970년대 한국영화의 ‘무작정 상경’한 여성 표상>, <<한국 근현대사 연구>> 8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296쪽 참조.

4) 박종주, <“교차성 페미니스트” 김벌리 크렌쇼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여/성이론>>, 2018, 06, 156쪽 참조.

5) 위의 글, 157쪽 참조.

을 고안한다.⁶⁾ 교차적 경험은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의 합보다 더 큰 것으로, 흑인 여성이 종속되는 특유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지만, 이는 하나 이상의 원인, 하나 이상의 억압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인간형이 자기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이에 따라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와 창수, 영자 남편이 각각 마주하는 교차적 경험, 만나에게 허용된 자기표현 및 사회적 경험과 영자가 겪는 교차 경험 차이를 비교해봄을 통하여 상대적 우위 관계 속에 인물이 처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 각색된 영자와 이름을 얻지 못한 영자 남편

소설에서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로의 각색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점은 소설에서의 남성 화자의 자의식을 담은 목소리가 영화에서는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화자 영자의 시점이 부각되는 점과 해피엔딩으로 귀결되는 결말이다. 소설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돌아온 병사인 남성 화자가 처음부터 영자가 죽은 이후까지 이야기를 주재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수직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여성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이 결부된 감정을 느끼는 과정을 보여주며, 영자의 죽음으로 끝난다.⁷⁾ 영자의 죽음을 대가로 남성은 갱생한다. 반면 영화는 창수의 시선을 통해 영자를 바라보는 창수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며, 창수가 영자 남편과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 화면 정면을 향해 질주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영자를 사랑하던 창수와 장애를 가진 영자 남편이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은 베트남전 파병으로 인하여 각각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갖게 된 두 남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남성의 형제애를 드러낸다. 즉 창수의 인식은 베트남 여성 위에 군림하던 자기에 대한 성찰이나 자기와 같은 계급에 속하던 창녀 영자를 죽게 한 사회 구조적 억압으로 향하는 대신, 주변부 남성성에게로 향한다. 이것은 영자의 가부장제 편입을 통해 당대 하층민 여성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효과도 낳는다. 많이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영자의 전성시대>를 보았던 관객들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호스티스 업에서 벗어나 결혼을 통해 제도에 편입되기를 바랐다.

노지승은 영자의 얼굴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두 남자 위에 겹쳐진다는 점을 근거로, 두 남자를 소유하는 영자의 주체성에 주목한다. 그는 이 같은 결말이 당대 여성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게 하였던 하층민 여성의 욕망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저항적 목소리인 동시에 결국 가부장제로의 편입에 그치고 마는 한계임을 지적하고 있다.⁸⁾ 하지만 당대 하층민 여성의 욕망이나 저항의 성격 자체를 이러한 ‘저항적 쾌락’이라는 양가적 속성에서 찾으려 <영자의 전성시대>에 대한 비판을 접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영자의 전성시대>의 결말이 호스티스 업

6) 위의 글, 158쪽 참조.

7) <<20세기 한국소설 29 송영·조해일·조선작>>, 창비, 2005.

8) 노지승,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에 나타난 하층민 여성의 쾌락 - 계층과 젠더의 문화사를 위한 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4집, 2008, 04, 437~441쪽 참조.

에 종사한 여성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지만, 영자가 죽지 않고 장애를 가진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 엄마가 되는 것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이 그들이 진정 원했을 법한 제도권 내로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평등한 진입은 아니다. 당대 장애인의 위상을 생각할 때, 한 팔 없는 영자와 상이군인과의 연결은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의 위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장애인이자 여성인 영자는 정상 신체로 돌아온 베트남 참전군인인 남성 창수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그려진다. 영화에서 창수의 유사 아버지인 보일러공 김씨 아저씨가 영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과 위계 때문에 가능하다. 먼저 원작에서는 창수에 대한 정보가 더욱 자세하게 제공되는데, 창수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탄 훈장이 무색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전하다 목욕탕에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로 나온다. 그는 상시적으로 창녀를 찾으며, 베트남전에서 죽인 베트남들과 창녀들을 자신이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동등선상에서 보거나 영자를 폭행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식민적 종속성’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월남에서 공을 세우고 훈장을 땀지만, 사회적으로 자신이 인정받을 길은 전무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군림할 수 있는 젠더인 여성 중에서도 돈으로 구매함으로써 자기 능력의 우월함을 매번 확인할 수 있는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다.

당시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파병을 대가로 1966년부터 1970년 사이에 9억 2700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돌파구가 되었다. 1966년 8월에는 반공주의를 위시한 박정희의 연설과 함께 <백마부대 1진 월남전 파월 환송국민대회>가 열려, 출정하는 군인들이 시가행진을 하고 군인 환송에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는 스펙터클을 연출했다. 이는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이 반공을 표상으로 삼으며 한국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전 국민적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였음을 보여준다. ‘달려라 백마’와 같은 노래가 잇따라 만들어졌고 이는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베트남에서 부대원들을 구하고 전사한 이인호 해병 소령의 장례는 전 국민의 의식이었으며, 전사한 소령의 아들, 딸에게는 각각 해군사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이 허락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이 전쟁에 징집된 미국인들도 철저히 미국의 하층 계급이었을 만큼 베트남전은 계급화된 전쟁이었는데, 한국군인은 미군의 원조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실익 앞에서 미군의 이데올로기를 수직적으로 주입 받은 채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용병이자 피식민인과 다름없는 입장이기도 하였다. ‘영예로운 반공 국가’로서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프로파간다를 내세웠지만, 실은 한국 정부는 돈을 받고 자국 군인들을 파병한 것에 불과했으며, 전쟁 과정에서 한국 군인들은 인종적, 문화적으로 미국인보다 베트남인에 더 가까우면서도 철저히 미군의 이데올로기를 주입 받음으로 인해 미군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어야 했다.⁹⁾

9) 식민적 종속성(colonial subjugation)은 프란츠 파농의 개념으로, 오랜 노예 제도를 경험한 자들이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 편에 서서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식민주의자로 군림하려 하는 자기 분열 태도를 일컫는다. (박진임, <한국 소설에 나타난 베트남 전쟁의 특성과 참전 한국군의 정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집, 2003.12, 129~130쪽 참조.)

창수는 베트남전에서의 귀환 뒤 베트남에서 죽었던 군인들을 떠올리거나 성적으로 범하려 했던 소녀를 떠올리면서 한국 사회에서 창녀에게 군림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기 분열 증상을 겪고 있는

결국 창수는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 주입에 의해 저지른 살인이 '대한남아'라는 훈장이 되어 돌아오던 시절,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표면적 영애'와 '현실적 초라함'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월남에서 돌아온 '개선 용사'이지만, 창녀를 앞에 앉혀 놓고, '월남에서 베트남을 일곱 명 죽였다'며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자랑하고,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사람 죽였다는 게 자랑이더라"라는 창녀의 말을 듣는 게 고작이다. 또, 영화의 도입부에서 경찰은 창수에게 "월남에서 돌아온 용사가 술집에서 주먹다짐을 해서야 쓰겠나."라는 말을 하는데, 이를 통해 베트남전 훈장은 귀국 현실에서 쓸모없는 것이지만, 베트남 참전 후 몸 성하게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로 '남성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창수가 갖는 '표면적 영애'와 '정상 신체'는 창수와 영자, 영자 남편 사이에서 가장 우위에 놓인다. 영자가 김 씨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창수 앞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영자와 창수와 결혼할 수 없었던 것이 사회적 압력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영자가 '표면적 영애'와 '비정상 신체'를 가진 남성과 결혼한 것 또한 사회적 시선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영자 남편이 창수를 알은 체하는 장면과 영자를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두 남성 사이의 형제애의 정체는 무엇이며, 영자의 결혼을 보면서 뿌듯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객은 대체 무엇에 만족하였다는 것인가.

영자 남편이 갖는 교차적 경험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경험에 의해서도, 남성의 경험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으며, 장애인이라는 축을 교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규명 없이, 영화에서 그는 영자 남편으로 명명되기 위해 존재한다. 영자에게 결혼은 죽음 대신 삶이라는 보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영자에게 감사하게 수여되며, 이는 표면상 영자는 더는 성매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주부 생활을 선사한다. 이때 관객은 성매매 과거를 가진 장애 여성 영자를 장애인 남성과 매치하는 영화적 장치에 속은 것일까, 그러한 사회적 시선과 타협한 걸까, 아니면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인 그들을 타자화하면서 영화의 시선과 공모한 걸까. 마지막 장면은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두 남성 간의 가부장적 유대를 드러내는 장치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교묘한 위계를 내재한다. 이는 영자에게도, 이름을 얻지 못한 영자 남편에게도 폭력적으로 작용한다. 영자의 삶의 실제 내용이나 자기 선택, 사회 현실과 무관하게, 뜬금없는 결말로의 점프 컷 속에서 영화는 영자의 행복을 가장하고 있으며, 창수와 영자 남편 사이의 위계가 두 남성의 형제애로 은폐됨에 따라, 영자 남편의 자아 공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작과 달리, 장애남성과 맺어진 영자를 매개로, 베트남전 참전 상이군인의 신체적 불구와 창수의 정신적 상처에 유대감을 부여하고 화합하게 하려는 영화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65년부터 73년까지 32만 명의 군인을 파견하였는데, 이들 중 5천여 명의 한국군이 사망하였으며, 그보다 더 많은 군인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베트남전 파병 초기 연구는 많은 반면 베트남에서 활약한 한국군이나 돌아온 이후 그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다.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인은 서구 세계나

듯 보인다. 영화에서 창수는 자주, 영자를 폭행한다.

한국에서도 ‘잊힌 군인’임을 감안해볼 때, 전사군인이나 상이군인은 반공의 표상으로 삼으면서도 그들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사회적 소외감과 좌절감 등은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¹⁰⁾

이 같은 맥락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당시 영자와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개인의 문제와 월남전 참전군인 및 상이군인 문제를 선부르게 봉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자 남편은 베트남전에서 상이군인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창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회적 타자일 수밖에 없지만, 영화는 현실적 불평등을 은폐한 채, 창수와 영자 남편의 급조된, 표면적 유대를 보여주는 데 그치고 만다.

이 성급한 봉합은 영자의 주체성과 관련 없이, 영자와 ‘영자 남편’으로서만 존재하는 그 남성을 나란한 위치에 놓는다. 장애를 가진 소수자의 삶이 같은 계층에 있는 남성 젠더의 그것과 결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시대적 불구성을 상징하는 한 팔 없는 영자와 베트남전 참전 상이군인과의 동일시라는 기제는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2) 안나와 안나의 남편들

당시 여차장이 신체를 훼손당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팔을 잃은 영자가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창수와 연관이 되는 것은, 1970년대 남성작가들이 경제 성장, 근대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 창녀들의 삶을 소외된 자와 동일시하던 경향과 관련이 깊다. 전후 문학의 창녀는 대부분 순수 혈통주의를 고수하는 가부장적 남성작가의 눈에 비친 ‘오염된’ 기지촌 여성이었는데, 이때 기지촌 여성은 생존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군인에게 몸을 파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성이자, 지켜주지 못한 무기력한 지식인의 좌절과 분노를 투사하는 대상이었던 반면, 1970년대의 영자는 여성의 윤리적, 정신적 타락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동일시와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¹¹⁾ 또한 대중적으로는 1970년대 빈곤한 농촌 출신 여성들의 행로를 보여주면서 촌스러움의 기표가 된 동시에 보편성을 획득한다.¹²⁾ <안나의 유서>가 전후 문학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안나의 불행을 전후 생존 문제로만 그리면서 1970년대의 감각을 읽지 못하였다면, <영자의 전성시대>는 영자가 식 모살이하면서 받는 부당 대우, 팔을 잃게 된 경위, 공장에서 일하지만 돈을 모을 수 없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도시적 삶으로의 이행과 도시적 삶의 조건을 보여준다.

<안나의 유서>가 동시대적 감각을 읽어내기에 실패한 이유는 당대 안나에게 허락된 자기표현의 한계로 인함이다. <안나의 유서>(1975)는 기지촌 정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던 1970년대 중반에 기지촌 여성을 소재로, 한국전쟁 직후 전쟁고아가 된 여성

10) 박태균, <남베트남 패망 40년, 베트남전쟁과 한국>, <<역사비평>>, 2015, 05, 참조.

11) 문영희, 이메일 해설, <‘근대화증후군’을 문제 삼은 소설의 눈>, <<20세기 한국소설 29 송영·조해일·조선작>>, 2005, 346쪽 참조.

12) 문영희, 위의 글, 346~347쪽 참조.

이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부터 그 딸이 대학생이 되는 시점까지 20여 년을 그 배경으로 한다. 즉 1970년대에 1970년대의 기지촌 여성에 대해 국가 구조적 모순을 지적할 수 없었던 영화는 전쟁의 처절함을 강조하면서 안나의 불행을 정당화한다. 안나는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집약된 존재로서 그는 전시 인민군에게 성폭행 당하며, 인민군에 의해 부모를 잃는다. 즉 이 영화에서 안나는 그 불행이 깊어지면 질수록 그 원인은 한국 전쟁, 인민군이라는 뿌리로 귀착될 뿐인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대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영자와 같은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설계된 인물이다. 이는 미군 기지촌 형성에 있어 한국 정부의 역할, 한국 정부와 미군의 공모 관계를 은폐하면서 원인을 다른 데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안나가 영자와 가장 다른 점은 영자에게 허락된 사회 편입이 안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나가 되는 과정은 ‘전쟁 통해 겪은 성폭행’과 ‘결혼 실패’로 요약된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가 국내 남성을 상대하는 ‘창녀’가 되기 전까지 식모, 버스 안내양, 여공 등의 ‘노동자’ 이미지를 구축하였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영자는 그 자신이 장애를 얻고 장애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지만, 한국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성인 반면, 안나는 결국 한국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여성이다. 즉 영화는 명애가 안나가 되는 과정이며, 안나가 명애라는 한국 이름을 회복하지 못한 채 소멸해가는 일방향을 보여준다. 이는 기지촌 여성이 일반 성매매 여성보다도 사회적 위치나 인식 면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었음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안나의 남편은 부패한 부르주아이든 양심 있는 지식인이든 안나와 맺어지지 못한다. 안나는 처음부터 인민군에 의해 ‘오염된’ 존재로, 그리고 그 귀결점은 기지촌으로서 그가 당하는 불행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안나의 유서>, 동일시할 대상의 부재

1) 단절되는 관객의 욕망과 영화 속 부조화가 말하는 것

<안나의 유서>가 당대 유행하던 여성 수난 서사의 공식을 따르면서도 흥행에 참패하였던 이유는 여성에 대한 위계의 작동과 함께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1970년대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임에도, 이 영화는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공간과 전쟁고아로서 생존 그 자체가 문제인 기지촌 여성을 보여주기에 급급하다. 박정희 체제 하에 기지촌 정화 사업이 시행되던 75년임에도 기지촌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점, 전후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표출된다는 점이 이례적인 반면, 그만큼 기지촌 여성의 삶이 실제로 그려지지 못하고 왜곡되면서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욕망을 단절시키는 지점들도 찾아볼 수 있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 남성은 부정적 인물로서 탈락되거나 일찍 죽음으로써 관객의 동일시를 방해한다. 물론 이는 명애가 안나가 되는 길목에서 명애의 불행을

극대화하는 장치들이다. 명애는 선하지만 그의 선함에 대한 대가는 그가 살아있을 때 보상받지 못한다. 안나는 '양공주' 신분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도, 꼬마 아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죽는다. 하층민 여성의 가정으로의 편입과 같은 대리 욕망을 충족시키지도, 기지촌 여성의 피해자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을 해내지도 못하는 것이다. 대중이 동일시할 수 있을 만한 판타지적 요소나 생명력이나 선함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도덕적 올바름이 <안나의 유서>에는 결핍되어 있다. 영화를 열고 닫을 때 등장하는 의리 있는 건달, 의리 있는 미국인, 미국인에게 입양되어 구김살 없이 자란 안나의 딸만이 이 시대의 도덕성인 것 마냥 재단되면서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사회 밑바닥에 처해있던 타자의 삶에 관한 당대 대중의 욕망 및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최소한의 도덕성에 관한 요구는 모두 묵살된다.

안나의 딸 은미를 기르며 후세대까지 남는 남성은 안나의 기지촌 시절 살림을 차렸던 미군 남편과 미군 부대의 물건을 털거나 밀수 일을 하던 깡패 동팔이다. 즉 미군과 깡패로 표상되는 두 남성이 안나의 조력자이자 안나를 기억하는 주체이다. 재미있는 점은 안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나머지 두 명의 한국 남성 중 한 명은 전쟁통에 가족과 집을 잃은 가난한 명애를 물질로 유혹한 후 자신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파렴치한 부르주아이며, 다른 한 명은 양심적이고 사회 비판적 인물 학수인데, 극단적으로 다른 두 전형은 서로 대비되면서도 끝내 명애와 맺어지지 않으며 탈락된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전후 횡행하던 사기와 비양심의 주체를 양육집을 지음으로써 돈을 많이 벌게 된 건축 자본가를 재현함으로써 당시 부르주아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효과가 있으며, 후자는 전쟁을 도발한 북한군과 부패한 국내 권력에 대해 모두 비판적인 양심적 인물인데 끝내 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사한다. 후자는 그는 명애와 결혼한 직후 인사차 방문한 아버지 묘소에서 죽고 만다. 그는 북한군이 남겨놓은 수류탄에 폭사(爆死)함으로써 한국 전쟁의 유물로, 과거사의 한 장면으로 박제된다. 이 일이 명애와의 결혼을 알리려 방문한 학수 아버지 묘소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은 명애의 한국 사회 진입이 허락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양심적이고 합리적 지식인이 안나의 현실에 개입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반공주의자인 학수가 서사적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죽는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감식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6.25로 인해 부녀자와 어린 소년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점을 직시하며, “민주화를 빙자한 개인주의와 양촌, 재즈,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사기, 정치브로커, 제 나라 위기는 어쨌든 해외유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언제 올지 모를 전쟁을 피해서 해외 도피하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인물이다.

학수는 여러모로 재미있는 인물인데, 먼저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졌음에도 미국과 한국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데다 성매매하는 명애의 사정까지 속속들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성 친화적 인물이다. 학수가 철저한 반공주의자라는 설정이나 미국을 비판하고 호스티스 업에 종사하는 명애와 결혼식을 올린 직후에 그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검열의 영향일지 모르지만, 가부장제의 불안함을 드러내는

기제이기도 하다.

재미있는 점은 비판적 지식인 학수는 전후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찰을 한다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의 ‘실제 삶’을 들여다봄을 실천하는 ‘흔적’을 남기는 인물이며, 학수의 죽음은 이 흔적의 제거라는 점이다. 즉 그의 죽음은 명애가 만나라는 ‘기지촌 여성’이 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면서 여성의 피해자성에 대한 수궁이 일어나는 지점이며, 기지촌 여성의 피해자성과 그 딸의 ‘아메리칸 드림’ 실현이 모순 없이 양립되는 서사적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안나의 유서>는 기지촌 여성의 신산한 삶을 대중적 소재로 차용하는 한편, 아메리칸 드림을 아무 비판 의식 없이 제시하던 80년대 대중문화의 전신을 보여준다.

너무나 때 이른 학수의 죽음은 명애에게 잇따른 불행을 가져오는 동시에 학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관객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을 앗아간다.

또한 80년대는 냉전이 와해되면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던 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영화가 등장시킨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신사적인 미군 이미지에 동일시하기도 어려웠음 직하다. 말하자면, 75년의 시점에서 50년대 전쟁고아인 기지촌 여성의 기구한 삶을 다루는 것이 새롭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일시 가능한 한국 남성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80년대를 향해가고 있는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기는 무리수였을 것이다.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여전히 전후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만을 기지촌 여성의 유일한 알리바이로 내세우고 있는 <안나의 유서>는 70년대의 도시-농촌 간 격차나 빈부 격차, 급격한 산업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제시하거나 동일시할 대상 인물을 소거해버리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관객들의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영화는 안나의 딸 은미를 헬리콥터에 태워 해외 입양 보내는 장면에서 헬리콥터 여러 대를 보여준다든지, 밀수 등의 어두운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동팔을 선한 인물로 동일시하게 한다든지,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의 손가락질에 시달리는 안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포착하는 등 매끄러운 봉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한국 남성들의 등장과 퇴장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드러내기도 한 바, 이 영화에는 전후 체계 없이 부와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가치 체계를 제대로 성립하지 못하였던 전후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극단적 풍자와 동시에 서슬 퍼런 체제 하 검열이 만들어낸 웃지 못 할 희극적 요소도 깃들여 있다 할 수 있다.

4. 나가기

이상에서 1975년에 개봉된 ‘여성 수난 서사’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와 <안나의 유서>를 비교함으로써 19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던 때 사회적 변화와 함께 여성이 기억되던 방식을 살펴보았다.

1975년 베트남 종전과 함께 귀환한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할 때, 영화에서 장애를 가진 채 살아남은 영자는 강한 생명력의 주체로서 정신적/육체적 장

애를 가진 베트남 참전 용사인 남성의 기억을 대리하면서 한국 남성 주체가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자는 베트남전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남성과 결혼을 함으로써 베트남전 참전 피해에 대한 위무를 받고 싶은 한국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반면 <안나의 유서>는 동일시할 대상을 소거해가는 영화의 구성 방식으로 인해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 내거나 젠더나 계급에 소구하지 못한다. 먼저 이 영화에서는 한국 남성이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이 부재한다. 건축 자본가는 비양심적 인물로 탈락되며, 반공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남성은 전후 권력층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던 중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소거된다. 영화는 당대 검열을 의식해서인지 선량한 미국인과 반공주의를 표면에 배치하면서도, 한국 자본가를 통해 미국문물을 비판하며 반공사상을 가진 인물을 죽게 하는 등 냉전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이데올로기가 소거되어 가는 가운데 만나마저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꼬마 아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양공주’ 신분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죽는다는 점에서 하층민 여성의 가정으로의 편입과 같은 대리 욕망을 충족시키지도, 기지춘 여성의 피해자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을 해내지도 못한다. 대중이 동일시할 수 있을 만한 판타지적 요소나 생명력이 만나에는 결핍되어 있다. 또한 1970년대의 도시화나 여성 권리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어 구시대적 영화라는 느낌을 준다.

즉 두 편 모두 냉전의 자장 안에서 선택보다는 운명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했던 여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영자는 미국의 패권 아래 베트남 참전 피해를 겪어야 했던 가장 주변부 남성과 동지애를 나눈다는 점에서 기억되었으며, 안나는 해방기의 암울한 상황이 소거되는 가운데 끝내 탈/냉전의 시대로 가는 대중의 경험과 공통분모를 형성하지 못한 채 망각되었다.

<<참고문헌>>

- 자료

<안나의 유서> (최현민, 1975)

<영화의 전성시대> (김호선, 1975)

- 논문

노지승,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에 나타난 하층민 여성의 쾌락 - 계층과 젠더의 문화사를 위한 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4집, 2008, 04, 413~444쪽.

박진임,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 전쟁의 특성과 참전 한국군의 정체성>, <<한국현

- 대문학연구>> 제14집, 2013, 12, 111~139쪽.
- 박태균, <남베트남 패망 40년, 베트남전쟁과 한국>, <<역사비평>>여름 호, 2015, 05, 163~199쪽.
- 박민형, <파병 50주년 시점에서 재평가한 베트남전쟁의 현대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103 권, 한국국방연구원, 2014. 04, 189~221 쪽.
- 백문임, <70년대 문화지형과 김승옥의 각색 작업>,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03, 57~80쪽.
- 손영님, <1970년대 한국영화의 '무작정 상경'한 여성 표상>, <<한국 근현대사 연구>> 8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12, 275~306쪽.

-단행본

-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여성의 전화 엮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아카데미, 1999.
- 창비, <<20세기 한국소설 29 송영·조해일·조선작>>, 2005.
- 피터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 한우리 김보명 나 영 황주영, <<교차성 x 페미니즘>>, 여이연, 2018.